

Pamiry

2017 7월~9월 vol. 18

수암 공장 랩핑1호 - 미녀군단

팩컴 낚시 동호회

2017 Book Expo America



고객의 꿈을 만들면 우승품이다

All About Printing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ONE STOP TOTAL PRINTING SERVICE **FOR THE BEST, BY THE BEST!**

팩컴은 One-stop Print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전통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인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Total Graphic Solution Provider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과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여, 지속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 8층 (정자동 젤존타워2) | TEL : 031-718-3666 | FAX:031-718-5857

Pacom

Pacom AAP

Book m'ake

CONTENTS



- | | | |
|----|-------|----------------------|
| 02 | 부서소개 | 안산 수암공장의 미녀군단을 소개합니다 |
| 04 | 상식쏙쏙 | 랜섬웨어 예방 |
| 05 | 건강톡톡 | 여름철 건강관리 |
| 06 | 동호회 | 바다는 잔인하지도 인자하지도 않았다 |
| 09 | 칭찬릴레이 | |
| 10 | 북페어 | 북 엑스포 아메리카 |
| 11 | 피플 | 해외영업부 유공심 과장 |
| 12 | 인터뷰 | Yummy Yummy 팩컴 식당 |
| 15 | 축하해요 | 생산관리부 신규현 대리 |
| 16 | 건강톡톡 | 사상체질 자가진단 및 여름 보양식 |
| 18 | 힐링로드 | 생명의 땅, 순천 |
| 20 | 페스티벌 | 2017 여름축제 |
| 21 | 꿀팁저장소 | 여름철 실내 온도 낮추기 |
| 22 | 찰칵소리 | |
| 23 | 팩컴뉴스 | |
| 24 | 공감 | 칠월 |

수암 공장의 미녀군단 랩핑 1호 팀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모처에서 사보 팀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 기자는 곧바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 만나 보게 된 이 날의 주인공은 바로 안산 B동의 랩핑 1호 팀!

맨 처음으로 팩컴 안산공장 설립 첫 해 10월 20일에 41세의 나이로 현장에 뛰어들어, 벌써 15년 째 열심히 근무 중이신 베테랑 선임자 성점순 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큰 아들이 S 반도체 컴퓨터 관련 기업에 올해 성공적으로 취직을 하였고, 둘째 아들은 다재다능해서 백댄서, 비보이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라고요. 이야기 하는 내내 집안 자랑에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더군요.

반면 성점순 님의 둘도 없는 단짝이신 서선희 님은 그 옆에서 나는 벌써 세 살배기 외손녀가 있는 할머니라면서,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야속함을 새어 나오는 한숨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말씀하시는 김향진 님은 자녀 한 분은 취직, 한 분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시더군요. 랩핑 팀은 올해 경사에 겹경사. 좋은 일들만 있어 모두들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이셨답니다.

러시아에서 온 김올가 님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렀으나, 이제는 한국 사람 다 된 듯 완벽한 한국말 구사는 물론이거니와 재미난 이야기와 율동으로 팀의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 옆에서 박수엽 님은 내년에 당신이 환갑이라며, 날짜까지 철저하게 알려주시면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랩핑 1호 팀은 모자 시간이 근무를 함께 하는 팀이기도 하죠. 이민교 군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회사가 좋아서 본인의 어머니를 소개하여 현재 모자 간 사이 좋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민교 군의 어머니이신 흥지순 님은 (입사 순으로 따지자면) 랩핑 1호 팀의 가장 막내인 셈이네요.

이곳에는 친인척 관계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안산공장 진행을 맡고 있는 목문수 사원의 사촌동생 목승수 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역시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번역, 통역이 모두 가능한 엄청난 중국어 능력자라고 하네요.

물론 아직도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산적해 있다고들 하시지만, 지면 관계 상 2탄은 내년 가을 호 특집으로 실하고 하며 이 기자는 이쯤 해서 급하게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답니다.

이렇듯 팀의 소식통으로써 숙지하고 계신 직원들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전하며 즐겁게 인터뷰에 힘써 주신 성점순 님은

늘 일에 보람을 느끼며 근무 중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하신 팩컴 역사의 산 증인으로써,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엔 모두들 내 집안의 일처럼 솔선수범해 주는 직원 분들이 있어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시네요.

아, 참고로 안산 미녀군단이라는 칭호에 숨겨진 깊은 속뜻은요,

미! 소가 끊이지 않는

여! 장부들이 있는

군! 더더기 하나 없이

단! 단한 랩핑 1호 팀 이라고 합니다.

안산 미녀군단 화이팅 !  **이원성**



— WARNING — RANSOMWARE

컴퓨터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중에서도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해 알아보고, 내 컴퓨터를 지키기 위한 예방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랜섬웨어?

랜섬웨어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에 침입하여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강제로 암호화 한 뒤, 파일에 걸린 암호를 풀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인질 사기극(?)입니다. 왜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돈을 준다 해도 파일에 걸린 암호를 순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잠적해 버리기 때문이죠. 범인들은 파일의 몸값으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인터넷 화폐(비트코인)를 요구하므로 범인들을 추적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들은 확장자가 “.ccc”, “.encrypted” 등으로 변형되며, 일반인이 파일에 걸린 암호를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2. 랜섬웨어는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요?

- ① 이메일로 받은 첨부파일을 통해 감염
- ②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을 통해 감염
- ③ 랜섬웨어 코드가 심어져 있어 안전하지 않은 웹 사이트 방문 시 감염
- ④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의 경우,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어도 침투하여 감염시킬 수가 있음

3. 랜섬웨어에 걸리면 파일이 어떻게 암호화되나요?

- ①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자동으로 랜섬웨어가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 ②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랜섬웨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범인들의 C&C 서버에 접속시킨 후,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와 아이피 정보 등을 전송하게 됩니다.
- ③ 이후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파일들을 암호화 시킨 후에, 암호화된 해당 데이터 정보를 범인에게 전송합니다.
- ④ 공격이 끝나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범인의 흔적을 삭제합니다.
- ⑤ 만약 피해자가 중요한 파일을 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게 될 경우, 범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암호화 된 파일을 복호화 할 수 있는 키를 전송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파일들이 랜섬웨어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제어판 > 백업 및 복구에서 랜섬웨어 피해를 받기 이전으로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단 이 경우 복원 지점 이후에 저장한 파일들은 모두 삭제되므로, 남아있는 중요한 파일들은 USB 등에 미리 옮겨 두셔야 합니다.

② 카스퍼스키나 안랩에서 제공하는 복구 툴들을 이용해 보세요. 최근에 활동하는 랜섬웨어들에는 소용이 없지만 이전 버전의 랜섬웨어들일 경우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정말 중요한 파일이라 반드시 복구를 해야만 할 경우, 전문 보안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복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걸린 랜섬웨어의 종류와 파일의 가치 등에 따라 상이하게 청구됩니다.

④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파일들이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냥 깔끔하게 컴퓨터를 포맷하세요. ^^

5. 랜섬웨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파일이 첨부된 수상한 이메일이 온다면, 함부로 열어보시면 안 되고 미리보기 등을 통하여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수상한 이메일이라면 열어보시지 말고 바로 삭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② 파일 공유 사이트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파일을 다운 받게 될 경우 검증된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검증된 정식 파일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③ 블로그,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수상한 인터넷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됩니다.
- ④ 컴퓨터에 저장된 중요한 파일들은 주기적으로 USB나 외장하드에 백업해 놔야 합니다.
- ⑤ 매일매일 올라오는 윈도우 업데이트는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실행해 줘야 좋습니다.
- ⑥ 운영체제가 윈도우 XP일 경우,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해 주지 않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윈도우 OS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 줘야 합니다.
- ⑦ 삼성이나 LG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역시 랜섬웨어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도 수상한 홈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⑧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Microsoft Security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전체 검사를 해 주시고, 또한 다른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컴퓨터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박미선

여름철 건강관리!

사실 건강관리란 건 1년 365일 내내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각 계절마다 딱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좋겠죠?
올 여름, 팩킹인들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유용한 정보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1. 취침 전 샤워하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열대야가 계속되는 여름 밤, 더위에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지고, 숙면을 못 하게 되니 체력도 떨어지게 되어서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에는 취침 전에 샤워를 해서 체온을 조금 낮춰 주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덥다고 무턱대고 찬 물로 샤워하시게 되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어 체온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점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2. 손 씻기!

손 씻기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여름에는 특히 더 중요하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세균 번식이 쉬워져 위생 관리를 조금만 소홀하게 해도 여러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깨끗하게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여 보아요!

3. 미지근한 물 마시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무더운 한여름에는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갈증 때문에 시원한 냉수를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들이키기도 하시죠?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물보다는 시원하면서도 달달한 맛의 음료수나 주스를 많이 찾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음료수에 함유된 지나친 당 성분이 비만이나 충치를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갈증 해소를 위해 마셨지만 역으로 심한 갈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 미지근한 물을 자주 섭취해서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해요!

4.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기!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기미, 주근깨, 홍반 등 여러 피부 노화 현상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막아 주어야 할 텐데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양산 또는 모자, 선글라스 등 패션 아이템 겸 자외선 차단 용품을 되도록 착용하시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 박다솜



바다는 잔인하지도 ~~~~ 인자하지도 않았다.

팩컴 낚시 동호회

6월의 바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거칠었다.

이른 아침 시간인 7시, 미리 멀미약을 마시고 나서 학암포의 작은 포구에 정박된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 우리가 출조하는 그 날,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이상이나 되는 거친 날씨였죠.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즐거운 마음이 더 컸답니다. 우리 팩컴 가족들과 협력업체 사람들은 2대의 배로 나누어 타고 선장님이 이끄는 대로 먼 바다로, 바다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누가 서해를 황해라고 했던가요? 강한 바람이 구름을 말

끔히 걷어 낸 하늘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도록 파랗게 맑았고, 바다는 푸른 하늘빛만큼이나 깨끗하고 쌩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배 뒤 편에는 스크루가 만들어 낸 하얀 물보라가 길게 줄을 이어 저만치 멀어져 갔고, 그 위로는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저희들끼리 담소를 나누며 물보라를 재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낭만적인 풍경이었죠.

한참을 나아가던 배가 처음으로 멈추었고, 선박 스피커에서는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낚싯줄을 내리라는 신호였는데요, 사람들은 바쁘게 미끼를 끼우고, 짜릿한 손맛을 느끼기 위해 저마다 대어를 꿈꾸며 낚싯줄을 내렸습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왔다, 왔어!” 탄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래미, 우럭들



이 줄 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배 위를 돌아다니시던 선장님은 아무런 말 없이 커다란 뜰채를 들고, 누군가의 옆으로 가서 무심히 서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그 옆에는 낚싯줄이 걸렸다고 불평을 하며 힘들게 낚싯줄을 감고, 올리느라 고군분투 중인 박선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와중에 선장님은 원가를 감지하셨던 걸까요? 잠시 후,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수면 위로 떠오른 거대한 생물, 대형 광어…

선장님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의미심장하게 씨익 웃어 보이고는 뜰채로 커다란 광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잡은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광어를 들고 돌아가며 기념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대형 수확 덕분에 선상에서 광어, 우럭 등 싱싱한 회를 바로 맛볼 수 있었고, 뒤이어 맛있고 얼큰한 매운탕도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파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이럴 줄 알고 미리 멀미약을 먹는 만반의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 멀미가 점점 심해져서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제발 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 줘!” 홀로 선실에서 실신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배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실신하는 사투를 반복하며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배는 다시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휴. 구사일생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서로 살갑고 진득하게 대화할 기회는 좀처럼 없었던 동료들이었지만, 오늘 그 한을 전부 풀고 가겠다는 것처럼 그 날 저녁 이런저런 이야기 꽂을 피우다 보니 순식간에 장내가 시끌벅적 해졌답니다. 작은 펜션 마당에서 소주 한 잔과, 모닥불과, 웃음소리와 기타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는 바닷가 마을, 새까만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사라졌다 부지런히 점멸하는 사이에 어김없이 새벽이 오고, 날은 밝아오더군요.

비록 얼마 안 있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우리 함께 힐링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을 것임에 틀림이 없겠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이 드는 순간을 겪을 때마다 간혹, 이렇듯 낱말 같은 이 시간들을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치유할 일입니다. [황철원](#)

2017 칭찬릴레이!!

제본사업부 정순이 사원 >>> 제본사업부 심은식 과장

저는 양장의 심은식 과장님을 추천합니다.

3층에서 가장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요, 직책을 떠나서 맡은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늘 최선을 다하신답니다. 또 가끔 제가 힘들어 할 때, 본인 일처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20년이란 시간 동안 같이 근무를 해 왔는데요, 항상 변함없이 멋지고 성실한 과장님입니다.



제본사업부 심은식 과장 >>> 제본사업부 강정례 사원

양장의 심 과장입니다. 저는 접지팀의 강정례 사원을 칭찬합니다.

일과 시간에도 언제나 웃음을 잊지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열심히, 팀의 활력소이시죠, 뿐만 아니라 1층, 2층, 3층,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지원도 잘 하고 못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손재주도 뛰어나시답니다. 늘 쉬지 않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 가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강정례 사원을 이 달의 칭찬 사원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본사업부 강정례 사원 >>> 제본사업본부 안준 과장

저는 중철의 안준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항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작업 진행 과정에서 작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죠. 정리정돈까지 잘 하시는 완벽님! 단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요만한 옥의 티랄까요… 그거 빼고는 여러 면에서 참 모범이 되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칭찬 릴레이의 마지막 주인공으로는 안준 과장님께서 뽑히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본사업부에서 많은 분들이 뽑히셨는데요,
팩컴인 모두가 칭찬받는 그 날까지 릴레이는 계속됩니다. 쭉~!

이원성



졌습니다. 올해는 주로 Abremente Cards, Board Book과 같은 어린이 놀이용 도서와 아트북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인쇄물 시장이 조금씩 축소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단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았으며, 고급 인쇄물이나 소장용 인쇄물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 Book Expo America

BEA

2017년 올해, 북 엑스포 아메리카 도서전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의 3일 간 미국 뉴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992년 이후부터 매년 김철성 부장님과 오지현 과장님의 꼬박 참가하면서 미주 시장 개척을 위한 환상의 콤비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올해는 특별히 김경수 사장님께서도 함께 참가하셔서 새로운 고객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출장을 다녀오신 오지현 과장님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 북 엑스포 아메리카 도서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북 엑스포'는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약 2,000개의업체가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 국제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나 저작권 거래 중심의 국제 도서전인 '런던 도서전' 보다는 살짝 밀리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출판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출판계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객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Sabra Chili, Lawrence의 합류로 매일 하루 10건 이상의 미팅을 소화하며, 잠재 고객들과 기존 업체와의 만남을 가

▶ 전시회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변화된 점이 있나요?

사실 매년 전시회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 전과 비교하면 30% 정도 규모가 줄었으나, 소설, 에세이 등 인쇄/출판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도서에 디지털 미디어(오디오, 비디오 등)를 접목한 제품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 전시회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프로젝트 진행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정작 큰 그림은 놓치게 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북쇼에 참가하는 것은 직접 고객과 대화를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참가한 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자, 반복된 업무로 인해 저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던 제 자신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팩컴의 고객 중에서는 미국 고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여러 해 동안 미국 전시회에 참가하여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업무에 녹여 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선영



유/공/심, 그녀가 돌아온다!

해외영업부 유공심 과장 컴백 기념 전격 인터뷰



1. 다시 컴백하기 전, 팩컴에는 언제 입사하셨었나요?

2004년 5월이었어요. 그때는 분당 사무실에 다녔었죠.

2. 지금의 팩컴과 예전 근무하실 때 팩컴의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전 분당 사무실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시작해서, 점점 회사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 새 식구들을 맞이하고, 부대껴 가며 정이 들고, 그들과 섞여 가는 위치였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만큼 더욱 성장한 모습의 회사, 그만큼 늘어난 직원들의 수, 그리고 발전된 시스템 사이에 예기치 않게 들어 와서 이제는 나 자신이 섞여 들어가야 되는 입장의, 조금은 이방인과도 같은 낯섦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부서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만큼 배우고 싶은 것도, 욕심도 많아졌어요.

3. 팩컴에 다시 입사하게 된 소감은요?

우선은 설렘과 두려움이란 감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그간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다시 내가 일을 다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4. 공백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평범한 여느 가정 주부로써의 역할보다는 큰 아이가 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였던 관계로 로드 매니저 같은 역할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큰 아이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다른 개인적인 시간이나 나머지 가족들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5. 가족들 자랑 좀 해 주세요.

각자 주어진 삶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웃음) 남편은 회사를 잘 이끌어 가고 있고, 큰 아이는 소치 올림픽에도 출전했었고요. 작은 아이는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답니다.

6.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혹시 더위를 이기는 과장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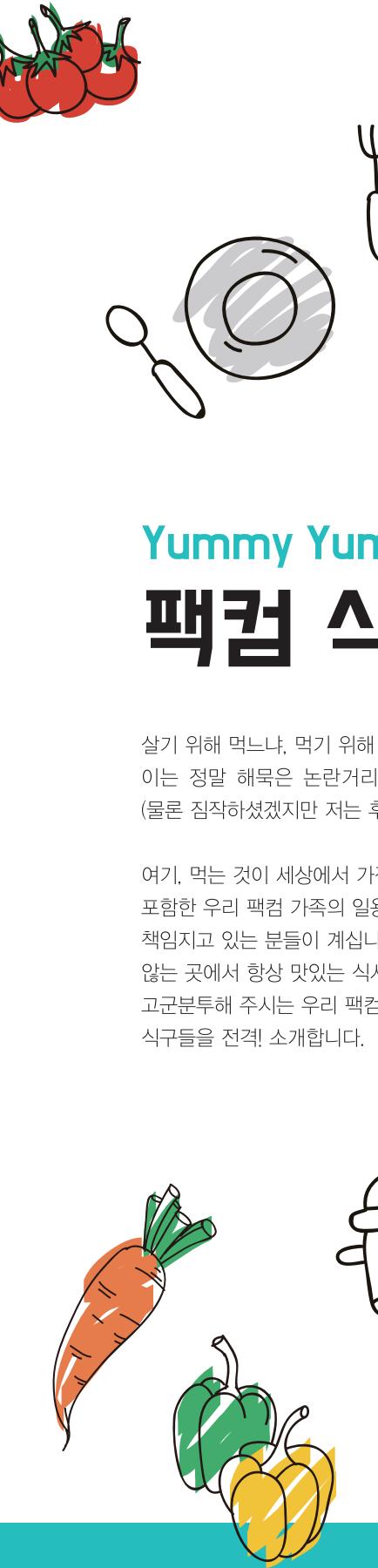
전 솔직히 더위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네요.

7.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사실 입사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마침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과 내 중년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데에 결코 늦지 않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재입사를 선택함에 망설임이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열정과 함께,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한 목적을 잊지 않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이들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살아가길 희망하는, 그것이 제 앞으로의 삶에 있어 커다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커요.(웃음) 그래도 마음만은 젊으니까 그 힘으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빨리 적응하겠습니다! 주선영



Yummy Yummy!! 팩컴 식당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는 정말 해묵은 논란거리 중 하나이죠.
(물론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후자입니다....!)

여기,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저를 포함한 우리 팩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맛있는 식사를 위해 고군분투해 주시는 우리 팩컴 식당의 식구들을 전격! 소개합니다.

NO 1. 김영하 조리실장님!

1.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팩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장 김영하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꽤 되었어도 따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해 식재료 정리 및 세척, 밑작업을 하고요, 전반적 조리 메뉴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힘들게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식사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청결 등에 있어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힘쓰고 있답니다.

3. 일하면서 특별하게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면?

작년 여름이었던가요. 특히나 무더웠던 폭염 속에 오이냉국을 제공했던 날이었습니다. 한 직원 분께서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며 직접 식당으로 찾아와 제게 음료수를 건네주고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저도 참 뿌듯했답니다.

4. 점심, 저녁, 야식 등 다양한 메뉴 선정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사실 무언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과 고객의 요구 사항, 최근 이슈가 되는 메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메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5.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팩컴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직원 분들 모두 저희에게 따뜻한 말과 친근함으로 가끔 개선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거나, 잘 드셨다고 말씀들을 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늘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모든 분들께 만족을 드리지는 못 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클 때임이네요. 앞으로도 항상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NO 2. 김옥순 찬모조리사님!

1.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팩컴 구내식당 찬모조리사 김옥순입니다.
실장님과 매니저님을 도와 재료 준비와 설거지 및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은?

음식을 보다 정갈하고 깔끔하게 내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늘 나름대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니 앞으로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3.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팩컴에 한 마디!

항상 맛있게 잘 먹었다고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식사를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NO 3. 김판이 찬모조리사님!

1. 담당하고 계신 분야를 소개해 주세요.

재료 준비와 설거지 및 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은?

특별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위생이겠죠.
식재의 세척 및 소독을 늘 올바른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일하면서 특별하게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면?

퇴식 시에 감사히 먹었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힘이 되고,
날마다 늘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4.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팩컴에 한 마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팩컴 직원 분들과 인사도 나누며 더욱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NO 4. 이정현 영양사님!

1. 식당의 하루 일과와 담당하고 계신 분야는?

우선 출근 후 실장님, 여사님들과 간단히 아침조회를 마친 후에 꼼꼼히 식재 검수를 합니다. 그 외 일지 작성, 메뉴 구성 및 발주, 보고서 작성 등 사무 업무 역시 제 담당이죠.

2.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생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청결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3. 개인적으로 정성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두부 위 예쁜 데코, 요거트 안 견과류 등)이 우리 식당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메뉴들을 고안해 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음. 그 부분은 아마도 맛집 탐방이라는 저의 취미 활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메뉴를 직접 맛보고, 사진도 찍어서 실장님과 상의하고, 고객 분들께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4. 팩컴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이 있다면?

일하다 보면 가끔 힘이 들거나 지칠 때도 있는데요. 쉬는 시간에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정원을 산책하며 언제든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5.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팩컴에 한 마디!

팩컴 식구가 된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어 갑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신 팩컴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더 맛있고,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당의 원활한 이용과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록 야식 담당이신 이옥화 여사님은 시간 관계 상 인터뷰에 함께 하지 못 해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바쁘신 근무 시간 중 급작스런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신 김영하 조리실장님, 김옥순 찬모조리사님, 김판이 보조조리사님, 이정현 영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팩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식사 후 잘 먹었다는 따뜻한 인사 건네는 것 잊지 마셔야겠죠? 짹짜 비워져 설거지가 따로 필요 없는 식판은 기본이고요! 배수민

* 팩컴 식당의 철저한 위생 관리 방침 상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에 보이는 일부 식재료의 모습은 실제가 아닌 촬영을 위한 연출임을 알려드립니다.



**just
Married**

◀ 생산관리팀 신규현 대리 ▶

오랜만에, 팩컴AAP의 직원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경사스러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7년 8월에 입사하여, 이제는 팩컴에서 어엿한 업무의 달인으로써 목하 활약 중에 있는 신규현 대리는 신랑 김진규 군과 함께 알콩달콩 깨소금이 쏟아지는 데이트도 하고, 열렬히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다가 마침내! 6월 10일(토요일) 오후 3시에 인생의 새로운 대장정, 그 시작인 혼인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부 신규현 대리로 말하자면 3녀 1남 중 셋째로, 이미 첫째 언니, 둘째 언니,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모두 결혼을 한 후라서 그런지 결혼식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신부 측 가족들은 어느 결혼식에서 보이던 흔한 신부 측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모습이 엿보였답니다. 또한 기자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규현 대리의 언니들, 남동생 모두 고향인 전남 정읍 반경에서 결혼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 대리의 결혼식도 지방에서 하게 될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회사와 가까운 안양 범계역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청첩장을 받아 보고 선 저 훌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작년 회사에서 진행된 진급자 외부 교육 과정에서 관리부 유현애과장이 타회사 직원인 신랑 김진규 군을 신규현 대리에게 소개해 주었고,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것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고 하네요.

예식은 범계역 스칼라티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결혼식은 꽤나 합리적이면서도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주례사는 과감하게 생략되었고,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서를 서로 진지하게 낭독하였으며,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 신부의 얼굴에 피어난 하염없이 밝은 웃음꽃은 마냥 결혼이 좋고 행복하다고 얼굴에 써 있는 듯한 느낌마저 주어서 저 역시 함께 행복한 웃음이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흔한 죽가 등의 여러 식순도 생략하고 스피디하게 진행되었기에 이 기자 개인적으로는, 음… 아마도 후다닥 예식을 끝마치고 어서 신혼여행(몰디브로의 4박7일)을 떠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닐는지… 속으로 여러 추측만을 무성하게 늘어놓곤 했답니다.(웃음)



아울러 식순 중 가장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인 행진 중 신랑, 신부의 경사스런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예식장 천장이 아름다운 축하 음악과 함께 활짝 열렸고, 유월의 푸르른 하늘과 햇살 아래서 신랑, 신부 행진이 이어지게 되는 낭만적인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진행되는 가족 사진 촬영은 만만찮은 인원 수의 대가족이 모두 나와 찍게 된 관계로 사진 촬영 삼각대가 평소보다는 다소 뒤로 가게 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찍는 신랑, 신부의 친구, 직장 동료 촬영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결혼식과는 달리 많은 생산 현장과 사무실 직원들이 축하하라 와 자리가 가득 채워 진 모습을 기대했는데,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오후 3시라는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허기를 참지 못하고 급하게 식사들을 하러 가셨더군요. 그 점이 살짝 아쉬웠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현 대리의 행복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기자는 이걸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원성



사상체질 자가진단 및 체질별 예를 보양식

자가진단

사상체질이란?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체질적 특성에 따른 생리, 병리, 진단, 치료와 약물 등에 대해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한의학적 이론 중 하나입니다. 각 항목 중 자기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해 보세요. (질문 내용 중 답변이 자신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 질문은 생략하고 넘어 가시면 됩니다.)

■ 체중

1. 표준 이상
2. 표준 이하
3. 표준
4. 표준

■ 체격

1. 큰 편
2. 가늘다
3. 단단하면서 보통
4. 보통

■ 땀

1. 많이 난다.
2. 거의 나지 않는다.
3. 잠잘 때 많이 난다.
4. 보통이다.

■ 물 마시기

1. 좋아한다.
2. 싫어한다.
3. 보통이다.
4. 보통이다.

■ 얼굴

1. 둥글다.
2. 가름하다.
3. 날카롭다.
4. 눈빛이 매섭다.

■ 걸음걸이

1. 의젓하다.
2. 자연스럽다.
3. 몸을 흔든다.
4. 성큼성큼 걷는다.

■ 성격

1. 속이 엉큼하다.
2. 여성적이다.
3. 즉흥적이다.
4. 통이 크다.

■ 좋아하는 음식

1. 육식, 밀가루 음식.
2. 생선 빼고 다 좋다.
3. 밥을 좋아한다.
4. 아재가 좋다.

■ 음식 습관

1. 얼큰해야 좋다.
2. 뜨거워야 좋다.
3. 뜨거우면 싫다.
4. 해산물이 좋다.

■ 목소리

1. 탁하거나 부드럽다.
2. 작고 조용하다.
3. 톤이 쉽게 높아진다.
4. 우렁차다.

■ 잠

1. 어디서나 잘 잔다.
2. 잠들기 어렵다.
3. 일찍 일어난다.
4. 일찍 잔다.

■ 술

1. 좋아하지만 술주정 X
2. 분위기에 따라 다름.
3. 빨리 취한다.
4. 많이 마시면 술주정.

■ 대인 관계

1. 원만하다.
2. 오래된 친구만 좋다.
3. 잘 해주고도 욕먹는다.
4. 쉽게 친해진다.

■ 심리

1. 형식을 좋아한다.
2. 친밀하고 꼼꼼하다.
3. 아부를 못 한다.
4. 변덕이 심하다.

■ 비슷한 동물

1. 소
2. 사슴
3. 말
4. 호랑이

■ 가치 기준

1. 돈
2. 명예
3. 사랑
4. 술

■ 사회생활

1. 협상을 잘 한다.
2. 포용력이 좋다.
3. 거의 중간을 유지.
4. 만사에 태평하다.

답변 중에서 1번이 많으면 태음인, 2번이 많으면 소음인, 3번이 많으면 소양인, 4번이 많으면 태양인 체질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라고 나오셨나요?

** 사상 체질 테스트는 여러 가지 진단 방법 중 하나로써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체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혹시 질병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세요!

여름 보양식

냉면, 콩국수, 삼계탕, 수박, 생맥주! 여름 하면 바로 뇌리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벌써부터 등골이 싹 시원해지는 듯 한 느낌! 그런데 이 맛난 음식들이 체질 상 내 몸에게는 해로운 음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나의 체질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내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도 살펴볼까요?

열이 많은 태양인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더운 음식보다는 대체로 찬 음식과 담백한 음식이 몸에 좋다.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물냉면, 포도 같은 찬 과일을 먹으면 더위가 가신다.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나 매운탕같이 얼큰하고 더운 성질을 가진 음식은 좋지 않고, 생맥주나 냉커피는 잘 맞지 않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좋은 음식 : 메밀국수, 냉면, 푸른 야채샐러드, 포도
나쁜 음식 : 소고기, 우유, 참외, 수박

폐가 약한 태음인

체질 상 콩이 잘 맞으므로 여름철엔 시원한 콩국수를 먹거나 우유를 마시면 좋다. 허약한 폐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도라지나 율무, 오미자 등이 좋고 약재로는 녹용이 잘 맞는다.

좋은 음식 : 콩국수, 미역 초무침, 우유, 오미자차, 수박, 바나나, 멜론
나쁜 음식 : 메밀국수, 파인애플, 푸른 야채, 키위, 조개류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 상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과 같이 열을 더 만드는 음식은 몸에 잘 맞지 않는다. 시원한 메밀국수, 수박화채, 오이냉채 등 찬 성질의 음식들이 좋고, 산수유차, 구기자차 등을 시원하게 해서 마셔도 좋다. 한편 몸에 열을 만드는 인삼, 대추를 넣은 보약이나 삼계탕 같은 음식은 피하도록 하자.

좋은 음식 : 오이냉채, 굴, 참외, 수박, 보리차
나쁜 음식 : 삼계탕, 장어구이, 오렌지, 보신탕

땀이 많은 소음인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빠지기가 쉽고, 몸이 차가운 편이라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자주 쐬게 되면 냉방병에도 걸리기 쉬운 아주 냉한 체질이다. 이런 열이 없는 체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닭과 인삼이 함께 있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인 삼계탕을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된다. 반면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소음인에게는 좋지 않다.

좋은 음식 : 삼계탕, 오렌지, 자몽, 인삼차, 생강차
나쁜 음식 : 아이스크림, 생맥주, 수박, 메밀국수

지금까지 체질에 맞는 음식을 알아 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겠죠?
체질 별 여름 보양식을 참고하여
팩컴인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김은영



생명의 땅, 순천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추억들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 생명의 땅, 순천으로 초대합니다.

낙안읍성

수원역에서 4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도착한 순천역. 오래 앉아 있느라 여기저기 빠근한 몸을 움직여서 미리 예약해 놓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본 순천 시내는 안양, 군포와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있던 친구와 합류하여 어디를 먼저 갈까 행선지를 잠깐 고민하다가, 유명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60~80년대를 배경으로 순천 읍내 거리, 달동네, 서울의 변두리 등 3개 마을을 시대별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제빵왕 김탁구, 자이언트, 사랑과 애망 등 유명 드라마들과 허삼관 등의 영화가 이 곳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촬영장 초입에서는 3,000원을 지불하면 50분 동안 옛날 교복을 빌려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촬영장이 그리 크지는 않으므로 50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돌리볼 수 있을 것 같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 촬영장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달동네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디 작은 집이었지만 오밀조밀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작은 집들 사이를 지나 골목을 올라가다 보면, 정말 그 시절 옛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아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드라마 촬영장 구경을 마친 우리는 순천의 더 오래 전 과거를 만나기 위해 이번에는 낙안읍성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정원



가기 전에는 민속마을이라고만 알고 갔는데, 마을을 빙 둘러싼 성벽을 보며 이곳이 왜 읍성이라고 불리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길을 죽 따라 걸어 올라가며 넓은 초가집 마을 너머 안개에 싸인 산을 보고 있자니, 마치 아득한 시간을 넘어서 과거로 여행을 온 것만 같은 신비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낙안읍성 내에 있는 초가집에는 불편을 감수하고 전통을 지키며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노을이 낙안읍성의 하늘을 곱게 물들이고, 초가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풍풍 올라오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아쉽지만 내일의 일정을 위해 숙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짐을 챙겨 나와 숙소 근처 식당에서 재첩국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사실 재첩국은 처음 먹어보았는데, 국물을 떠 먹다 보니 시원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밥까지 말아서 바닥까지 싹싹 깎어먹은 뒤, 부른 배를 소화시킬 겸 순천만 국가 정원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은 습지 2,260 만 m², 갈대밭 540 만 m²가 넓게 펼쳐진 곳으로써, 이전에는 흑두루미, 검은 머리갈매기 등의 조류 240여 종, 붉은발말똥개, 대추귀고둥 등 갯벌생물 300여 종의 서식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관광객 등으로 인해 자동차 매연과 소음 등 여려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고, 이러한 순천만의 습지와 아름다운 갈대밭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여러 고민 끝에 도심 쪽으로 5km 거리에 완충 지역으로 정원을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순천만 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정원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순천만 국가 정원의 랜드마크인 순천 호수 정원입니다. 드넓은 호수의 중간중간에는 마치 경주의 고분처럼 생긴 완만한 잔디 언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덧붙여, 순천 호수 정원에는 그늘이 없으므로 꼭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둘러보기를 추천합니다. 호수 정원을 지나고 나니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세계 각국을 컨셉으로 한 정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꼭 부모님과 와 봐야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정원이 워낙 넓으므로 부모님과 오게 된다면 관람차를 타고 정원을 구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 입장할 때 구매한 입장권을 이용하면 순천만 습지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스카이큐브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5~6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케이블카 정도 사이즈의 큐브에 탑승하면 모노레일을 타고 자동으로 순천만 습지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스카이큐브는 순천만의 갈대밭 위를 지나가기도 하고 물길을 따라 달리기도 하면서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스카이큐브에서 내려서 조금 걷다 보면 순천만 습지 위에 조성된, 사람 키보다도 큰 갈대 군락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방문하였으므로 초록빛 물결을 만나게 되었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아름다운 금빛으로 곱게 물든 갈대밭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습지 사이사이로 길을 낸 나무 데크 위를 걸으며 문득 생각난 것처럼 밑을 내려다 보면, 붉은 집게발을 가진 자그마한 게들이 갯벌 위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습지 한 쪽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생태 체험 배를 타면 보다 편하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습지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순천만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용산 전망대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자그마치 30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힘겹게 전망대에 올라 보니, 마치 낙안읍성의 초가 지붕들처럼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조성된 갈대 습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대한민국 3대 일몰 풍경 중 하나로 꼽을 정도라고 하니, 시간이 된다면 꼭 용산전망대에서 순천만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P 박미선**

입장료

- 스카이 큐브** : 왕복 8,000원 / 편도 6,000원
- 순천 드라마 촬영장** : 3,000원
- 순천만 정원** : 8,000원
- 낙안읍성** : 4,000 원

2017 SUMMER FESTIVAL!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몸도 마음도 함께 지쳐만 가는 여름! 실내의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더위를 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양한 여름 축제에 활발하게 참여해 보시고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 보내 보는 건 어떠세요?

1. 양평 메기수염 축제 2017

- 기간 : 2017.06.02 ~ 2017.08.31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곱다니길 55 (단월면)

자유이용권 형식으로 축제 참여가 가능하며, 축제에 참여할 경우 맛있는 시식용 어죽을 맛볼 수도 있다는 ‘양평 메기수염 축제’!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여 물고기를 잡게 될 경우 닥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리 코너에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거나 시식용 어죽코너에 나눔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놀러 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맨 손으로 미꾸라지 사냥하기, 황토와 놀기, 모래성 쌓기, 모래 그림 그리기, 모래 보물찾기, 물싸움 놀이, 자유 물놀이 등>



2. 춘천 호수별빛나라축제 2017

- 기간 : 2017.06.02 ~ 2017.12.31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54 (삼천동)

춘천의 자랑인 의암호(湖)와 아름다운 공원을 활용한 그린페스티벌, 그리고 ‘제6회 호수별빛축제’! 춘천 MBC 사옥과 M광장 일대에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호수별빛축제는 다양한 테마를 구성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MBC 사옥 벽면에는 그래픽 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악의 흐름과 변화를 그래픽으로 변환시켜 재창작해 낸 기발한 영상을 만나볼 수도 있답니다. 잠도 잘 오지 않는 한 여름 밤, 가족과 혹은 연인과 함께! 시원한 바람도 썰 겸 다녀오세요~! 박다솜



무더운 여름철

실내온도 낮추기

찌는 듯 한 여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전기세의 압박! 전기 소모도 줄이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보자!



1.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 주세요.

보통 TV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플러그를 계속 끊어 두는 경우가 많다. 전자 제품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여도 콘센트를 끊어 두면, 대기 전력이 흐르게 되어 열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는 사용 후 과감하게 뽑자. 매번 뽑았다 끌었다 하는 게 영 귀찮다면, 콘센트마다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편리한 멀티 탭을 사용하자. 귀찮지도 않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대기 전력 소모 X 대기 전력 소모 O

TIP! 전원 버튼 모양으로 대기 전력을 구분하기

좌측의 그림처럼 전원 버튼에 세로줄이 원 안에 있다면 대기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제품, 전원 버튼에 세로줄이 원 밖으로 나와 있다면 대기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이다. 실제로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등 정말 아주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기 전력을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새어 나가는 전기를 잡자!

2.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보세요.

선풍기 바람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무겁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위쪽의 차가운 공기와 섞이면서 실내 전체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 집 안보다 바깥이 더 시원할 경우에는 창밖을 향해 선풍기를 틀어 놓는 것도 공기 순환과 시원함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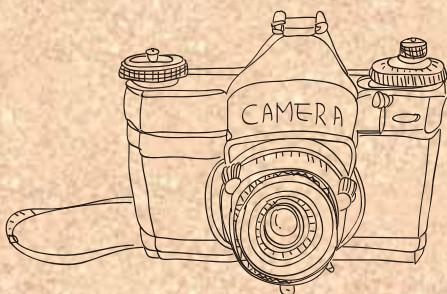


3.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세요.

블라인드나 커튼은 실내 인테리어 효과뿐 아니라 햇빛을 막아 줘 실내온도를 낮춰 주는 데에 탁월하다. 블라인드나 커튼 유무에 따른 실내 온도 차이를 실험해 본 결과, 온도 차가 무려 3도!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이는 선풍기 15대를 한꺼번에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다.

TIP! 창문에 에어캡 붙이기

블라인드나 커튼 설치가 어렵다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빽빽이라고 불리는 포장용 에어캡을 창문에 붙여 보자. "그건 겨울철 난방이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편견은 NO!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게 되면 단열 효과로 외부의 열을 차단, 실내의 시원한 공기가 창문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해준다. 최대 3도 정도 실내 온도를 낮추어 냉방 에너지를 절약해 주고, 자외선 차단 필름 역할까지 해 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은영



찰각소리

E semii@gopacom.com

재밌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 주세요!





PACOM NEWS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상 수상 : 조태성 대리

지난 4월 28일 오후 5시, 안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주요 기관장 및 회원업체 임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및 모범근로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날 인쇄사업본부의 조태성 대리(근로자대표위원)가 모범근로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는 김윤주 군포시장을 비롯해 안양, 의왕시장 및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관계기관 장이 전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직원 자녀 결혼 : 김이균 부기장

지난 5월 21일에는 인쇄사업본부 매입2호기 김이균 부기장의 장남 김태윤 군과 신부 서한솔 양이 안양 포시즌코리아웨딩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날 신랑 측 아버지로 참석하게 된 김이균 부기장은 신랑보다 더 훈철하고 말쑥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누가 신랑이고 누가 아버지인지 다소 혼동마저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이번 결혼식에서는 여느 예식과는 달리, 무려 신부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신랑을 위한 축가 및 울동을 헌정하였으며, 신부 동생들까지 참석하여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직원 자녀 결혼 : 김완수 대리

지난 6월 4일에는 제본사업본부 무선팀 김완수 대리의 장녀 김도란 양과 신랑 이신재 군이

안양 엠파워컨벤션 9층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날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는 굉장히 돋보이는 미모의 소유자로써, 인과관계 상 신부의 아버지인 김완수 대리가 젊은 시절 엄청 난 훈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내도록 신부가 너무 예쁘다는 말이 유독 많이 들려오던 예식이었습니다.



직원 결혼 : 신규현 대리

지난 6월 10일에는 생산관리부의 신규현 대리가 범계역 스칼라티움 예식장에서 신랑 김진규 군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위해 참석한 많은 하객들 앞에서 만면에 화사한 미소가 가득한 신랑, 신부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특집 기사에 실려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지난 6월 1일 월례조회 때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정은영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 날의 교육은 남북하나재단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 대화 및 행동에서 조심하여야 할 부분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에티켓 등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행동들에 관한 교육이었으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녀 출산 : 이운정 대리

창조팀의 이운정 대리가 지난 6월 16일, 6시간 여의 유도 분만 끝에 드디어 건강하고 어여쁜 공주를 자연 분만하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아기 이름은 기사를 작성하던 당시에는 미정이었으며, 대신 태명은 포옹이 (사실 별다른 태몽은 없었으나 당시 꿈에 어떤 키 큰 사람이 포옹을 해 주는 꿈을 꾸어 그렇게 지었다고 함)라고 합니다. 출산 전 임신 주 수 대비 아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으나, 다행히 3kg의 건강한 아 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운정 대리는 직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입사 소식 : 유공심 과장

해외영업부 창조팀의 유공심 과장이 5월 1일자로 새로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원성



칠월

한 바퀴의 절반을
처음 돌아가는 길목에서
구름에 가린 햇살은
장마를 불러들이고

그 동안 연두색이던 얇던 잎들은
오늘부터 더 진하고 두텁게
안토시안을 빨아들이는데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기 보다는
남은 길을 확인해야 하는
그래서 늘 처세에 익숙해진 몸은
더위에 처진 채로 소금을 찾는다

부모에 불효한 죄를 참회하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라고
보름날 백 가지 곡식의 종자를 가지고
칠월은 세상에 왔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한 무리는 촛불을 켜고
또 다른 무리는 촛불을 끄고
제발 그러지들 말라고
그들처럼 때로는 참고 베를 짜고 소를 키우며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은하수 건너에서 오작교 타고
칠월은 세상에 왔다

비록 지리한 장마가 온다고 할 지라도
칠월엔 우리 그렇게 사랑할 일이다





[북메이크]

단 한권의 책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콤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콤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